

個人主義와 社會主義 理想 (一)

「個我的 價値를 辨明함」

韓稚振

朝鮮 안에서 누가 評論의 붓을 든다하면 그는 거의 先天的으로 評論의 對象인 엇던 筆者의 個人的 短處와 反對를 爲한 反對의 口實을 찾기에 汲汲하는 것이다. 이는 朝鮮 論壇에서만 볼 수 있는 狂想的 現象이다. 왜 朝鮮의 論評者에게는 人的 短處만 보이고 無理한 反對와 辱說만 專門하려는가? 이런 故로 本 記者는 本來 그러한 評論에 根□하려 하지도 안코 또한 엇던 때에 抗議하여야 할 境遇에도 默過하고는 하얏든 것이다. 今番 朝鮮日報에 掲載된 『己巳年 論壇概觀』 가튼 것도 亦是 習慣的 惡評맞게 더 되지 못하는 故로 그것을 對答하려 하지도 안는다.

大概 評論이란 것은 檢査의 뜻이다. 朝鮮의 幼稚한 所謂 評論者들이 生覺하는 人身功擊이나 傍若無人的 惡口的 橫說豎說의 뜻은 아니다. 論文 自體의 眞正한 性質을 찾고 決定하려는 것이 評論의 根本的 目的이다. 그리고 眞情이란 것은 그 標準이 個人的 感情이나 民族的 偏見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一般的이요 共通的이 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特히 今日은 昔日과 달라 世界는 점점 縮小되어 사람마다 共通的으로 살게 된 形便에 잇서서 眞理는 世界的이 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럼으로 眞理란 것은 朝鮮人에게만 限한 것도 아니요 或은 日人에게만 限한다든지 或은 西洋人에게만 限하지 안코 全人類가 共通的으로 同意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鄭□□氏가 쓴 『己巳年 論壇概觀』은 그만 惡評이 된 理由는 實로 單子的 個我主義의 眞理를 捕捉치 못한다 있다. 單子的 個我主義란 것은 近代의 人文主義(Humanism)의 特別한 形式이다. 單子란 말은 分析할 수 업는 單純한 獨異의 뜻이니 이 感性을 가진 個我是 必然的으로 』外界의 影響을 맞지도 주지도 아는 自我的 力이다. 이 單子的 個我主義는 心理學과 自然科學的으로 考察하여 方今 『基督申報』 紙上에 連載되고 잇는 故로 여기서는 省畧하기로 한다.

大概 宇宙觀은 有史 以來 三次나 革命되었다 할 수 있스니, 첫 번은 사람들이 이 地球를 中心 삼아 萬物을 說明하였고(地球中心說), 둘째 번은 太陽을 中心 삼아 萬物을 說明하였스니 이것이 아직 그 □□을 維持하는 太陽中心說이다. 그러나 다시 個我中心的 宇宙觀이 說明되었스니 이것이 現代의 人文主義로 그 特別한 形式이 單子的 個我主義이다. 勿論 發見이란 말은 이미 存在하든 것을 다시 認識하였다는 뜻이니만큼 이 單子的 個我主義도 人人이 本來 所有하고 隱然 中에 主張하든 것을 明白히 發表하게 되었다는 거이다. 이 個我主義를 反對하는 者는 人格的 個體와 그 權利를 쳐나 抽象的 團體 國 社會와 政府를 中心 삼는 社會主義者들인 故로 우리는 本文에서 社會主義와 個人主義의 理想을 對照하여 보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여 두는 것은 우리가 밋는 個人主義는 이 世上의 宿命을 否認하고 各自의 興亡隆滅을 自展하는 獨異의 個我的 能力으로 決定된다는 것이다. 卑近하게 말하면 내가 亡하고 興하는 것은 다- 나의 實在이오 周圍環境이나 社會의 實在은 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엇더한 見地에서 論□하든지 同一한 原則이다. 엇더한 主義者이든지 이 個人的 能力을 認定하고 實行하는 것으로 大前提를 삼는 데서 무슨 成功히 잇을 것이다. 우리는 萬事의 根本인 이 個人的 價値를 主張한다.

一, 個人主義의 反對 理由

世上 사람들이 속으로는 各各 個人主義者이면서도 外面으로는 그를 反對하고 批難하는 큰 理由는 첫째, 個人主義는 社會의 利益보다 個人的 利益을 먼저 生覺하는 利己主義라는 것이오, 둘째 個人主義는 單只 建設보다 破壞만 主張하는 消極的의 主義라는 것이오, 셋째, 모르는 團體 其他 人類社會 制度를 否認한다는 것이오, 넷째, 政府와 모든 律法의 制止를 否認한다는 結果이 世上은 來終에 亂場版이 된다는 것일 것이다.

勿論 個人主義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잇는 가운데 以上 四個 反對 理由를 目的하는 個人主義도 업지 안 하였섯다. 그러나 우리는 大概 過去學者들의 講究한 以上 反對 理由들은 거의 다 無根한 解說일뿐 안이라 一種 偏見에서 發生한 無識者의 因□의 □□인 것을 □□□□□.

참다운 個人主義는 社會的이오 理想的이오 革□的이오 秩序的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그러코, 『아리스토텔[아리스토텔레스]』·『칸트』至於 『이쿠닌』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크로뫼킨』의 主張도 그러코 『푸르단』·『톨스토이』의 가르침이 그러타. 예수와 釋迦의 敎訓이 그러타. 우리는 이 모든 個人主義의 思想의 先求들의 直接 말한 것을 引用하면서 個人主義의 理

想을 解明하러 한다.